

<성경칼럼 요한복음 열번째 : 날때부터 맹인 된자의 의미>

요한복음 9장에는 날때부터 맹인이 고침 받은 사건이 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과 유사하다. 둘다 모두 오랜 병에 시달리다 고침을 받았고 너무 오랜동안 병자로 살아 그들이 고침을 받은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9:8-11)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그들이 고침을 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였다. (9:14)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 문제는 그냥 넘어 갈 수가 없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이 두 사건들을 유독 기록한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에는 인간의 ‘죄’ 의 문제가 깔려 있다.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죄’ 를 규정하는 방법에 있다. 유대인들에게 ‘죄’ 는 ‘율법’ 을 기준해서 결정 된다. 율법의 권위는 사람 누구에게나 유혹에 빠져 들게하는 무서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 율법에 대한 권위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율법’ 은 사실 하나님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 이라고 규정한 것은 안식일에 금한 것을 했기 때문이다. (9:16)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기준’ 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 라고 규정한다. 가장 용서 받지 못할 죄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죄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보고야 믿을 수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마와 같다. 사람들은 도마처럼 확인해 보고 믿는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0:24) 하셨다. 사실 보고 확인한 후에 믿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최고의 믿음은 될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이다. 반면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가장 큰 믿음이 되는 것이다. 누가 해당 될까?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 되도다’ 하신 것을 예수님 승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 된다는 ‘시대적 조건’ 으로 받아 들여서

는 안된다. (혹 그렇게 생각 하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란 무슨 뜻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활동 하시는 ‘성령의 능력’ 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우리 시대는 성령이 활동 하는 시대로 (그 령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현 시대에 존재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활동을 감지 할 수가 없다. 그런면에서 ‘보지 않고 믿게 된다’ 는 뜻이다. 이미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 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고 들어 갈수도 없다’ 하신 이유다. (3:3,5)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올법’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말 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모순이 될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다고 그 성경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 말씀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변적 신학’ (경험을 배제한 이론적인 형 태의 신학) 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중세 ‘스콜라 신학’ 의 문제였다. 날때부터 맹 인된 사람이 유대인처럼 올법을 알았을까? 사실 그는 올법을 몰라서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올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거다. 요한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준 그 영적 비결은 보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듭남’ 은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것이다. 마치 바람처럼 말이다. (3:8)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수 있고 없고는 올법에 관계된 것이 아 니라 ‘성령’ 에 관계된 것이다. 보수 개혁주의가 지나치게 ‘말씀’ 을 강조하다 ‘성령의 활동’ 을 뒷전에 놓아 버리는 실수를 범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 다.

‘기독교’ 와 ‘종교’ 의 차이는 무엇일까? 종교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다. 종교는 하나님을 찾 도록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지는 못한다. 종교는 인류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악하지만 결코 고칠 수는 없다. 그러 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논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기독교는 내 문제를 알고도 고칠 수 없는 것을 내 도움 없이도 고친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아 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배제된 율법 자체로는 종교일 뿐이다. 필자가 은퇴후 가장 두려웠던 것이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배제된 사변적인 것이었다면 나는 종교를 논했을뿐 기독교를 선포한 것이 아닌거다. 성령이 배제된 말씀으로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를까? (요한의 가장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 성령이다)

기독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길을 열어준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지적한대로 종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이 해야 할 '도덕의 의무'에 모든 것을 건다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한 의무 이행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의무와 관계없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것이다. 날때부터 맹인 된 자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볼수 없었다. 그가 눈을 떠서 처음 본 것이 자신을 고쳐준 하나님이였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 들였다 (9:36-38) 그가 성경에 남긴 말은 '나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들을 할수 없으리라' (9:32-33) 이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 한 것 아닐까? '종교의 의무화'가 되 버린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로와 졌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쓸어 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버린 이 시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성령으로 거듭난 의인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모두 쓸어 버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두 쓸어 담아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날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이유다.